

제 1 권 제자훈련의 터다지기

I. 2020 년도 교과 과정 (Curriculum)

일시	제목	숙제 (주어진 일시까지)
2 월 05 일(1 st)	1 과 나의 신앙고백과 간증	1 과 예습 / 책 3 권 읽기 및 발표
2 월 26 일(4 th)	2 과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2 과 예습 / 간증문 적어오기
3 월 04 일(1 st)	3 과 경건의 시간 (큐티)	3 과 예습 / 큐티 노트 쓰기 및 발표
3 월 18 일(3 rd)	4 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4 과 예습 / 책 3 권 읽기 및 발표
4 월 01 일(1 st)	5 과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5 과 예습 / 1 시간 기도하기
		한 사람 정하기 (제자 삼기)

II. 3 월 18 일 모임 순서

1. 찬양
비둘기 같이 온유한 (찬송가 187 장)
2. 기도
3. 책 3 권 발표 (자원자)
4. 제자 훈련
[제 4 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5. 숙제 (4 월 1 일까지, 5 과 예습하기, 1 시간 기도하기, 한 사람 정하기 - 제자 삼기)
6. 기도제목 나눔
7. 주기도문

187

비둘기같이 온유한

(통일 171)

S. Browne, 1720
Ash and Evans' Collection, 1769
보통으로

Come, gracious Spirit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롬 8:16)

성령 강림
HOLLEY: 8.8.8.8.
G. Hews, 1835

1.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 서서
2.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 의 길 바로 오 걸 으 며
3. 주님과 동행 하 면 서 서 거룩한 길로 행 하 며
4. 연약한 나 를 도 우 사 하 나 님 나 라 이 르 며

거침머 어루 만 지 사 위로와 평화 주소 서
주님을 옆에 모 시 고 경건히 살 게 하 소 서
진리의 예수 불 잡 고 길 잃 지 않 게 하 소 서
주님의 품에 안 기 는 영원한 안 식 주 소 서 아 멘

쉬운 기타코드(capo=3rd) Eb→C Bb→G Cm→Am Eb7→C7 Ab→F Abm→Fm

Richard Phillips, 『Hebrews (히브리서)』, Phillipsburg: P & R Publishing, 2006, p240~241.

어떤 이유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것은 사도들에게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왜냐하면 사도들은 구약을 자신의 독자에게 권위를 지닌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진술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한 말일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숨을 불어넣은 (inspired) 말씀, 즉 그들 자신의 영적인 통찰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통해 주어졌으며 하나님이 숨을 내신 (expired) 말씀,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내쉬어진 말씀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듯이, 바로 이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며, 책망하시고, 바로 잡으며, 의로 교육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갈 때, 즉 선포되는 말씀이나 여러분 자신이 읽는 말씀이나 성경의 가르침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놓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런 목적을 위해 그 말씀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 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며 활동하십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경을 읽게 하라.” 또 청교도인 토머스 왓슨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른 책들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변화된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내쉬어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다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벧후 1:20~21). 베드로가 한 ‘예언’이라는 말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예언적 계시 전체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언이 선지자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은 선지자 자신의 해석이 아니며, 그 생각도 그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핵심적인 진술은 21 절에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물론 사람이 말을 하고 기록했지만, 성경 저자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서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및 사회, 역사적 배경이 원독자와 다르고, 특정 본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그런 차이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적절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독자에게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권위와 구속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성경이 시간을 초월하여 생명이 있는 엄밀한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ibid., p244~247.

이 이미지가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꿰뚫는 능력 또는 찌르는 능력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 4:12). 이 구절의 요점은 인간의 신체적이고 영적인 본질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립 휴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저자의 관심은 인간 구조에 대한 정신적이거나 해부학적인 분석을 제공하는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격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간다는 것을 생생한 용어로 묘사하는 데 있다.” 말씀은 모든 방해물을 뚫고 들어가 단지 인격의 어느 한 측면만 아니라 전인을 사로잡습니다. (중략)

존 뉴튼은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 사로잡은 사람이었습니다. 18 세기 중반에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뉴튼은 집을 떠나 영국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거기서 뉴튼은 죄의 길에 깊이 빠져 들었으며, 결국은 탈영하여 아프리카에 가서 살았습니다. 뉴튼이 아프리카를 택한 이유는 그곳에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기회가 가장 많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뉴튼은 노예 상인이 되었지만, 그를 지배하던 사람들에게 혹사를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엉망이 된 몸으로 바다를 향해 도망한 뉴튼은 간신히 영국 상선에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뉴튼은 그가 지닌 항해 지식 덕분에 항해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그에게 신뢰를 보였을 때, 뉴튼은 배의 보급품인 술을 훔쳐 마시고 취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취해 있을 때, 선장이 돌아와 뉴튼의 머리를 때렸고, 뉴튼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선원 가운데 한 사람이 구해 주지 않았더라면, 뉴튼은 익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귀국하는 길에 스코틀랜드에 가까이 왔을 때, 배가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벗어났습니다. 여러 날 동안 폭풍우가 몰아치고 휘청거리는 배 안에 물이 들이쳤습니다. 뉴튼은 선창에 내려가 절망적인 두려움 속에 양수기를 돌리며 무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튼은 거기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가 여섯 살 때 가르쳐 주셨던 성경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뉴튼의 안에 살아나 그의 생각과 태도를 꾸짖고 뉴튼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으며, 뉴튼은 용서와 구원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배는 마침내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했고, 뉴튼은 신학 공부를 시작하여 유명한 청교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뉴튼은 그가 지은 찬송가들, 특히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자를 구원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눈먼 자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그 말씀의 메시지이자 목적인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살아 있고 활력이 있으며, 찢러 쪼개며 판단합니다.

John Stott, 『John Stott at Keswick: a Lifetime of Preaching (그리스도처럼)』, Keswick: Keswick Classics, 2008, p131 & 135.

핸들리 모울 주교는 디모데후서 주석을 쓰면서 눈이 뿌옇게 흐려지지 않고는 이 서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그만큼 감동적인 서신입니다. 나이 지긋한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쇠약한 몸으로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도로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4:7)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한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기독교 신앙은 어찌 될까?’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줄곧 이 문제로 씨름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신앙을 물려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온 힘을 다해 신앙을 지키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전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중략)

사실상 바울의 복음 사역은 끝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이제 곧 순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고 나면 복음은 어떻게 될까?’ 지하 감옥에서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바울의 머릿속엔 온통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네가 복음을 위임받았으니 네가 복음을 책임질 차례’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녀 장으로 이루어진 디모데후서에서 복음에 대한 의무를 강조합니다. 먼저 1 장에서 복음을 지킬 의무, 2 장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의무, 3 장에서는 복음에 계속 거할 의무, 4 장에서는 복음을 전파할 의무에 대해 각각 이야기합니다.

Ibid., p145~150.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복음은 곧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죄와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와 구원에 대해 입을 닫아야 한다면, 교회는 문을 닫고 해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구원이 없으면 복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눅 2:10-11).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 ‘이 구원의 말씀’이라 칭했고,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a) 구원의 특성

구원이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쾌하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용서는 서로 바꿔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구원은 용서보다 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에는 거룩함이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 장 9 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라는 말을 하기가 무섭게 바로 이어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이라고 덧붙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구원 계획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중략) 구원이라는 단어는 훌륭한 단어입니다. 구원은 자기 백성을 의롭다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계획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고, 마침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차츰 변모시키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조차 구원을 단순한 죄 사함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협소한 개념에서 벗어나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 구원의 원천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구원의 강이 시작되는 원천을 찾으려면, 우리의 회심이나 시간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영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 장 9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영원한 시간 전부터’,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선행 덕분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중략) 물론 유한한 우리로서는 선택의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교리는 지극히 성경적인 교리이며, 이 교리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한 행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교리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지고 깊이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두고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택의 교리는 우리에게 확신과 평안을 안겨 줍니다. 이 교리를 통해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c) 구원의 근거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10 절) 행하신 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역사적 시간 속에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을 때 무슨 일을 하신 것일까요? 그리스도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10 절)

그리스도는 사망을 폐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사망은 죄인에게 임하는 냉혹한 형벌, 즉 죄의 삯 (롬 6:23)이므로 사망이라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처하게 된 곤경을 한 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폐하신 사망은 모든 형태의 사망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육체적 사망을 폐하셨고,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영적 사망을 폐하셨고, 영혼과 육체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을 폐하셨습니다. 세 가지 사망은 모두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삯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모두 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망을 폐했다는 말은 사망을 제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알고 있듯이 죄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살아 있을 세대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지옥에서 둘째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듯 사망은 여전히 실재합니다.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슨 뜻으로 그리스도가 사망을 폐하셨다고 자신 있게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폐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카타르게오 (katargeo)’는 ‘쓸모없게 만들다’ 또는 ‘무효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 장 55 절에서 바울은 사망을 침이 뿜힌 전갈, 즉 아직 살아 움직이지만 침이 없어서 해를 끼칠 수 없는 전갈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새영어사전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번역합니다. (중략)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육체의 사망은 더 이상 무서운 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망은 예수 안에서 자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신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영적 사망을 극복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에 대해, 그리스도가 사망을 폐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제 곧 사형 선고를 받을 몸입니다. 사형 집행인이 부르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높이 치켜든 칼날이 햇빛에 번쩍이는 모습이 뇌리를 스칩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폐하셨다”고 자신 있게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를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교회가 이 확신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이 무서워 감히 사망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폐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Paul Washer, 『The Gospel's Power and Message (복음)』,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2, p33~112.

기독교 교리들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한 가지 진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나머지 진리는 모두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크다. 그러나 복음의 탁월함은 다르다.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계시이자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지가기 때문이다. 복음은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유일한 메시지다. 성경의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위험하지만, 사소한 몇 가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모든 것이 결단난다. 복음의 탁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중략)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죄인이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말을 암기했다고 해서 복음을 알거나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중략) 진지하지 못한 사람은 그저 흉내나 내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으로 만족할 테지만, 우리는 성경을 살살이 파헤쳐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광부처럼 극한의 한계까지 나아가 일시적인 쾌락을 포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복음의 지식을 파헤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무지 때문에 마음이 항상 굳은 상태로 지속될 것이다. (중략)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죽으셨다. 따라서 죄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복음을 옳게 선포할 수 없다. (중략) 죄의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출생해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치 물을 마시듯 악을 저지른다. 물고기가 물에 젖은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듯, 우리도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인간의 부패함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재발견해야 한다.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진다. (중략)

질병의 원인을 찾고 그 심각성을 설명하는 것이 치료책을 찾는 첫 단계다.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의학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불이 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불난 집에서 뛰어나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으며,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분을 간절히 찾을 수 없다. 죄를 인정하게 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말해 주어야 한다. 위험에서 도망치게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비로소 자기 의에 근거한 모든 희망을 버리고 그분께 달려갈 수 있다. (중략)

오늘날에 논의하는 죄는 주로 인간에 대한 죄, 사회에 대한 죄, 또는 자연에 대한 죄다. 오늘날의 문화는 하나님께 대한 죄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다윗 왕은 백성의 신뢰를 저버리고 간음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그는 모략을 꾸며 무죄한 한 남자를 살해했다.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자, 그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시 51:4)라고 고백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 첫째, 다른 사람은 물론, 피조물을 상대로 저지른 죄도 하나님께 저지른 죄다. 둘째, 죄가 극악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피조 세계 전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곧 피조물에게 완전한 사랑과 헌신과 복종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거역한 하나님이 지극히 영광스럽고 탁월한 분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죄의 극악한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의식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분의 율법 가운데 가장 작은 계명을 위반하더라도 더할 나위 없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

John Stott,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Grand Rapids: InterVarsity Press, 2006, P62~64.

교회는 구원의 본질을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고질적인 경향이 있다. 마치 구원이 자기 혁신이나 죄사함, 낙원에 들어가기 위한 여권이나 사회적, 도덕적 결과가 따르지 않는 사적이고 신비적 체험에 불과한 것처럼 취급한다. 우리는 긴급히 구원을 이러한 회화적 표현에서 구해 내고, 성경적으로 온전한 의미의 구원 교리를 찾아야 한다. 구원은 세 단계의 철저한 변혁으로, 우리가 회심할 때 시작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속되며, 그리스도가 오실 때 완성된다. 특히 우리는 한데 결합되어 있는 진리들을 분리하려는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

먼저, 구원을 하나님 나라와 분리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는 이 두 표현이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를 묘사하는 사실상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52:7 에 따르면,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또한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이다. 즉, 당신이 통치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구원은 그분의 통치가 가져오는 복이다. (중략)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즉 인간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 주는 모델이며 세속 사회에 도전하는 대안이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구약에서 오랫동안 약속했던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는 우리 몸과 사회와 우주가 모두 새롭게 되고, 죄와 고통과 무의미와 질병과 사망이 근절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한다. 구원은 큰 개념이다.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축소할 자유는 없다.

둘째,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과 주 예수님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일부 복음 전도자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이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은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우편으로 높이셨으며, 우리의 주로 삼으셨다. 그분은 최고의 권세와 집행권을 가지고 계시므로 구원과 성령의 선물을 주실 수 있다. 그분이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단언과 “예수님은 구세주시다”라는 단언은 바꿔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분의 주권은 우리 삶의 종교적인 부분을 훨씬 능가한다. 그것은 우리의 공적, 사적 경험 전체, 가정과 직장,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의무, 복음 전도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전부 포괄한다.

셋째, 우리는 믿음을 사랑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믿음을 강조해 왔다. ‘솔라 피데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는 종교개혁가들의 중대한 표어 중 하나였으며, 지당한 것이다. ‘칭의’ 혹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가 행했거나 행할 수 있는 선행 덕분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은총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유일한 근거에 의해, 그분만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복음의 이 중심적 진리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믿음이 혼자 뚝 떨어져 있을 수는 없다. 그것이 생생하고 진정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선한 행실을 낳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믿음이다. (중략) 바울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썼다(고전 13:2). 구원하는 믿음과 구원하는 사랑은 한데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는 것이다. 둘 중 어느 것도 따로 존재할 수 없다.

David Jackman, 『The Message of the John's Letters: Living in the love of God (요한서신 강해)』,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8, p123~125.

만약 미래에 대한 우리의 모든 기대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현재 할 수 있는 만큼 그분처럼 되기를 원할 것이다. 천국이 목적지라면, 그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 여행해야 한다. 우리는 요한이 면밀히 어떤 예외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에게 적용된다. (중략)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려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값없는 은혜라는 동전의 또 다른 면이다.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주장하면서, 불순종하거나 진리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자리잡게 된 죄에 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사실상 그것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John Stott, 『John Stott at Keswick: a Lifetime of Preaching (그리스도처럼)』, Keswick: Keswick Classics, 2008, p200~204.

(a) 성경의 기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16 절)입니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구절은 헬라어 단어 ‘테오프뉴스토스 (theopneustos)’를 번역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숨을 내쉬’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것이다.” 이 말은 성경 자체나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것이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것,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감 (inspiration)’이라는 말이 사용하기 편하긴 하지만,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더 정확히 전달하려면 ‘숨을 내쉬 (expiration)’이나 ‘숨을 쉬 (spir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어 하나님의 입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치 공식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사야 55 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 55:8~9).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 속 생각과 인간의 마음 속 생각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의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읽을 수 없고, 여러분은 제 생각을 읽을 수 없습니다. 제가 무표정한 얼굴로 강단에 서서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제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제 마음 속 생각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제 마음 속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마음과 또 다른 인간의 마음이 말을 통해 소통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들의 마음이 소통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중략) 이것이 성경의 기원입니다.

(b) 성경의 목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6 절). 성경의 목적은 유익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유익한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것이 성경이므로 성경은 인간에게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디에 유익할까요? 잠시 15 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입니다. (중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피조물이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와 죄책, 저주와 심판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는 우주 비행사가 달에 가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 탐구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계시하신 성경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도덕적, 영적 진리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시합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어떻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널리 전했으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서술합니다.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안에 충만한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의 최종 승리를 약속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어디를 펼쳐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고속도로와 공공도로, 시골길과 오솔길을 막론하고 어느 길로 가든 결국 런던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모든 절과 모든 단락, 모든 장, 모든 책이 결국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은 성서 숭배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연인들이 애인의 사진과 편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애인의 사진이 소중하다고 해서 진짜 애인을 앞에 두고 사진에 입을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인들이 애인의 사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진이 애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Sinclair Ferguson, 『From the Mouth of God (성경, 하나님의 말씀)』,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2014, p218~226.

성경 속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감동시키고 의지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형성시킨다. 디모데를 격려했던 바울의 말에서 우리는 이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수 있다. 바울은 성경이 네 가지 면에서 ‘유익하다’고 말한다.

1. 가르침에 유익하다.

기독교는 ‘배우기보다 몸에 배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성령과 말씀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배우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중략)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 혹은 배우는 자가 됨을 뜻한다.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면,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하는 모든 것은 곧바로, 저절로, 혹은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에는 경험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이 많다. 그것을 적절히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그를 ‘선생님’이라 부른 것은 단순한 존중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가르치셨고, 또한 그 가르침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만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통찰력이 자라면, 우리는 참과 거짓, 옳음과 그릇됨,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날’에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우리가 주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그분의 은혜로 자라게 하는 궁극적인 원천은 단 하나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태도를 지니려면 우리는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

2. 책망에 유익하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 가르칠 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도 손을 댈다. 그래서 ‘책망’이라는 명사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는 동사와 연관된다.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확신시키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은 은혜다. 그가 책망하시는 것은 악의가 아니다. 그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게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중략) 찰스 웨슬리는 감리교도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우리가 죄의 길을 배회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 양심을 책망하시고 방황하는 우리를 돌이키소서. 성령의 검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후에 길르앗의 유향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3.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다.

‘바르게 함’은 ‘하팍스 레고메논 (hapax legomenon)’이라는 말로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한다. (중략) 이 말은 수리하거나 재건할 필요가 있는, 즉 어떤 것을 고치는 것을 뜻한다. 어근인 ‘오르도스 (orthos)’는 ‘직선상의’라는 뜻이며 비유적으로는 ‘올바른’, ‘참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영어 단어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orthodontist’는 치아 교정 전문가다. (중략) 그러므로 우리를 ‘바르게 하며’ ‘정통’이 되게 하는 성경을 생각할 때, 이 같은 의학적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조명을 받고 우리 삶이 그 진리에 의해 먼저 변화될 때, 우리가 ‘바르고’ 유익한 가르침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치아 교정 전문의 비유가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는 건강하게 씹을 수 있는 치아로 교정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외모를 개선시키기도 한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될 때도 마찬가지다. 즉 우리의 성품도 매력적으로 변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치고 치유하며 회복시킨다. 우리의 감정과 성정을 정결케 한다. 우리의 영적 건강과 활력을 회복시킨다.

4.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다.

어떤 행동을 향상시키려면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기 원하신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습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신다.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분의 모든 명령은 “예수님처럼 되라!”이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 목표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훈련하게 하는 체육관이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훈련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투자다. 성경공부는 우리의 성품과 생활양식을 변화시킨다. 생각해보라. 운동선수와 음악가들이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가? 그렇다면 쇠하지 않을 상을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해야 하지 않겠는가!

Ibid., p98.

성경 공부의 접근법을 가장 잘 요약한 내용 중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나타나거나 옳고도 모순 없는 논리를 통해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 때라도 성경에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을 더 보태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진리를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는 인간의 행위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성경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기독교적인 신중함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그 자체로 다 명백하거나 모두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꼭 알고, 믿고, 지켜야 할 진리는 성경 곳곳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일상적인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유식한 자들뿐 아니라 무지한 자들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성경 해석의 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다. 따라서 어떤 성경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의미에 질문이 제기될 때는 그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다른 성경구절에서 그 대답을 구해야 한다.

이 내용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은 성경에 있다.
- 성경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모든 내용은 분명하고 간단하게 진술되어 있거나 성경에서 추론될 수 있다.
-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해석 방편들을 활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 성경을 읽고 적용할 때는 그 자체의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읽으면 안 된다.
- 성경의 각 구절은 다양한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타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맥 내에서 자체의 기본 의미를 지닌다.

<D. L. Moody>

“The Bible was not given to increase our knowledge, but to change our lives.”